

포천사회 知識人 ㉔

대진대학교 윤우영 교수

郷土性 작품 통해 지역정체성 確認

“初·中·高·大學 연결할 수 있는 연극반 구성해야”

“포천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오성과 한음은 포천시 상징 캐릭터의 소재로 하고 있다. 오성과 한음의 어릴 때 이야기가 주로 알려져 있으나 허구에 가깝다. 따라서 오성과 한음이 성인으로 활동하며 뜻을 굽히지 않아 귀양생활을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연극무대를 구성하고 싶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실에 가까운 fact를 찾아 엮은 작품이다. 오는 10월28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작품 준비를 위해 화선서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으며 역사자료를 찾아 정리한 바 있다.”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윤우영(尹友楹·45)교수가 지역의 향토성 있는 작품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에서 시도하는 오성과 한음 연극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은 극단 한내에 의해 10월26일 초연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에 나설 계획이다.

윤 교수가 오성과 한음 작품을 극단한내와 함께 시도하는 것은 포천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다. 우리지역의 역사인물을 발굴해 연극화 하여 문화상품으로 선보임으로써 포천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성남시의 남한산성 4부작을 1부당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극단과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자기 고장의 이야기를 자기 고장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성과 한음도 포천시의 협조가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에 관심 있는 사학자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윤 교수는 영국 브리스톨 올드빅 씨어터 스쿨(Bristol Old Vic Theatre School) 액팅터칭과 정(PGD), 중앙대학교 및 영국 브리스톨(Bristol) 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 졸업(석사) 및 박사과정-연출 연기론 전공)했다.

윤 교수는 1997년 ITI 세계총회 및 세계연극제 의전통역실장을 역임했으며 국제극예술협회(ITI,UNESCO)한국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윤 교수는 전국연극제 경기예선/ 국제 아동청소년 연극협회 연극상을 수상했으며 포천연극제 및 청소년연극제, 경기아마추어연극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연극배우협회 워크숍 강사 및 사단법인 열린문화 자문위원, 극단 실험극장 연출(1985~2000)을 맡았으며 현재는 대진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학부 교수, 극단 청

맥, DAPA(대진공연예술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윤 교수는 연극활동을 통해 제3회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했으며 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상(마로릿츠 핏)을 수상했고 ITI세계총회 및 세계연극제 개최공로상(1997,문화체육부장관상), 제24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및 연출상을 수상(조선제왕신위)한 바 있다.

윤 교수는 “포천 산정호수는 포천시가 의욕적으로 관광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천 산정호수 조각공원에서 국제대학연극페스티벌과 같은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축제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일을 하기 위해 윤 교수는 올 연말쯤 공연예술연구소 설립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대학원에 예술경영 전공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공연예술 이벤트는 물론 공연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포천에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정호수여새꽃축제, 동장군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공연예술연구소에서 집중 분석하고 문제점등을 지적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연출을 전공한 윤 교수는 연출에 대해 “한 작품을 집안의 가장처럼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려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연극제에 대해 윤 교수는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지만 연극인이 부족하고 연극인을 길러낼 수 있는 구조가 안돼 있다”고

지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연극반과 예술학교를 신설해 연극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도 포천연극협회의 노력으로 초·중학교 연극반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고등학교에 연계되는 연극반이 없어 대학진학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

특히 윤 교수는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학생들이 최근 동아연극상, 황금촬영상, 시나리오 공모전, 학생 영상대회 수상실적을 거머쥐고 있어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하하, 김다래 등 탈렌트를 배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연극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윤 교수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천 시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가 그동안 연출한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연극 ▶무서운 부모들(wid 폭도/작, 예술극장 논개) ▶검찰관(고필리/원작,윤우영/구성,V.메이어홀드 워크숍-웨일즈) ▶마로릿츠 핏(마로릿츠/작,은행나무 극장) ▶신의 아그네스(존 필리어/작, 문예회관 대극장) ▶오봉산 불지르다(홍정수/작, 알과책 및 동송아트센터 초청공연)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우연한 죽음(다리오 포/작,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조선제왕신위(차성우/작, 산울림소극장) ▶배꼽(김윤미/작,산울림소극장) ▶갈매(김태수/작, 인간소극장) ▶두 여자(유상욱/작,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및 문화일보홀) ▶생일파티(해롤드 핀터/작,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뮤지컬 ▶조셉과 에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A.L.Webber/작곡,브리스톨 워크숍극장)▶컴퍼니(S.Sondheim/작곡,워크숍 극장) ▶렌트(Jonathan Larson/작곡,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탐폴즈(김태수/작, 최완희, 김은혜/작곡,알과책)▶무용 ▶시무용극 금강(신동엽 시인 추모공연,신동엽/시, 예술극장 논개) ▶무용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신동엽/작,예술극장 논개) ▶무용극 귀천(천상병에세이제회공연, 의정부예술의전당)▶오페라 ▶카말메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마스카니/곡, 워크숍극장) ▶토스카(푸치니/작곡, 각색버전, 워크숍 극장) ▶이순신 러시아 공연(김탁환, 백기현/작, A.블라디슬라바 작곡, 러시아 알렉산드르프스키 극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정호수 관광지 국제대학페스티벌 등 祝祭개최지로 活用

취재파일 행정사무감사와 개선방향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의정활동 과거 수준

전문가 정책자문 개방형 의회전문위원회 도입 필요



본지 취재국장 하승완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허울 좋은 말 뿐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지방행정의 전문가에 가까운 반면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들은 지방행정이 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전문성을 결비한 사람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게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물이 지방의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유권자 의식이나 사회적 풍토를 감안하면 이 또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꿈만 같은 이야기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다.

포천시에 대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전 의회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이후 의정활동

올해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그들의 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31지방선거 이후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이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민원현장을 찾아 다니며 시민의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한 모습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각종 행사장에서 보냄으로써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천시가 당면한 각종 현안 문제에 관해서 자료수집이나 해결방안 등을 연구는 생각조차 못하는 시의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의원 정수가 8명으로 축소된 포천시의회가 과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포천시의회 초선의원들은 집행부에 감사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초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집행부의 다음회계년도 예산심의 의결권이다.

이와 더불어 1년 동안 집행부가 행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권한은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 제대로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기초의회가 그런 것처럼 포천시의회 의원들 역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진행중인 포천시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기 보다는 간담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했지만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행정에 관한 사전지식과 질문기법 등이 부족하다 보니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니기 일쑤다. 행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감사를 할 수 있다.

▶기초의회 시스템적 모순점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 선거를 통해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행정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이 하투아침에 시행되는 흐름을 파악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행정을 공부하고 익힌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시의원에 당선되면 이곳저곳 행사장에 참석하느라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이렇다보니 일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 겨우 행정이 뭔지 조금 파악하게 된다. 그것도 깊었던 내용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 행정이다.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 못하면서 품만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시의원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포천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기초의회의 시스템적 모순이다. 시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의회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만든 의회전문위원 인사권 역시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가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전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보좌가 제대로 이루어질리만 무하다.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오히려 회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포천시의회 활동 개선방향

포천시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 각종 행사장에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없이 시의원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 지방행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포천시가 안고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의원 스스로 지방행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정책지문을 받아 좀더 넓은 시각에서 시행정을 다뤄야 한다. 시의원 각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에게 정책지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시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전문성과 참신성을 결비한 개방형 전문위원이 시의원을 보좌한다면 시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풍산 그라비아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POONGSAN GRAUVRE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낙시용품 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 · 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